

기억과 상상의 연장으로서는 책

독일 미술가들에 의한 '책을 주제로 한 오브제'전이 워커힐미술관(11.6~30)에서 열렸다.

책을 주제로 한 독일작가들의 미술전

① 한스 알버젠 「인장 1987」(Das Siegel, 1987)

오브제로서의 책이란 '읽기' 대신 확장된 '독해방법'으로 새롭게 '사고'하는 것이다. 작가는 이 작품에 대해 "책장을 넘기는 것은 마치 숨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아 펼쳐진 토르소와 같다. 책장을 넘기는 것은 시간의 의식적인 체험이다"고 말한다.

② 위르겐 키르스펠 「밖+지나침II」(aus+vorbei II, 1982)

돌과 쇠막대와 책으로 굴러가는 특이한 형태의 이 작품은 광범한 의미에서 또다른 책의 역사를 투영시킨다. 그런 점에서 아르헨티나의 보르헤스가 한 다음의 말은 의미심장하다. "현미경이나 망원경은 보는 것의 연장이고, 전화는 목소리의 연장이며, 쟁기·칼은 팔의 연장이다. 그러나 책은 기억과 상상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좀 다르다."

③ 요셉 보이스 「거리에서의 행위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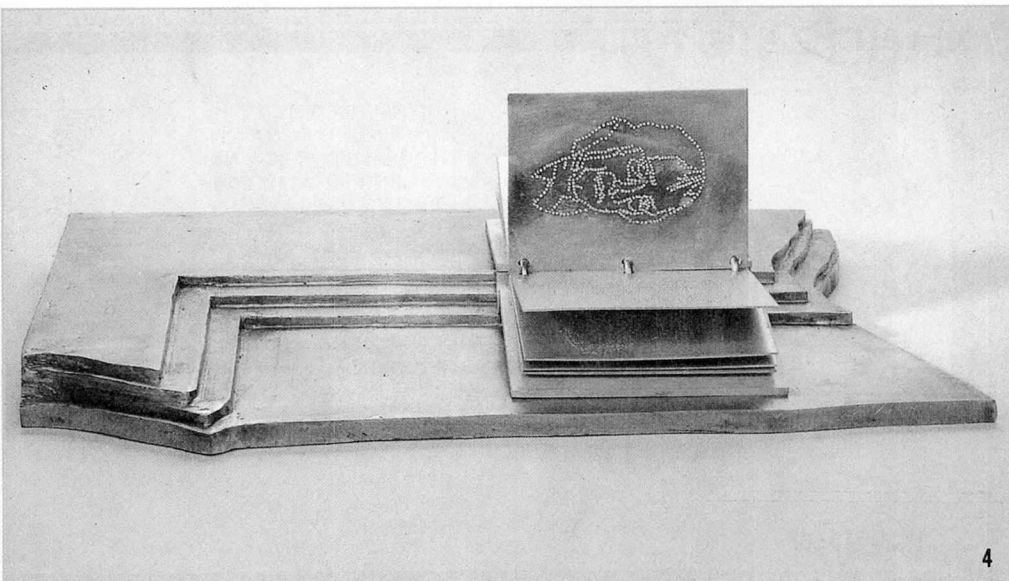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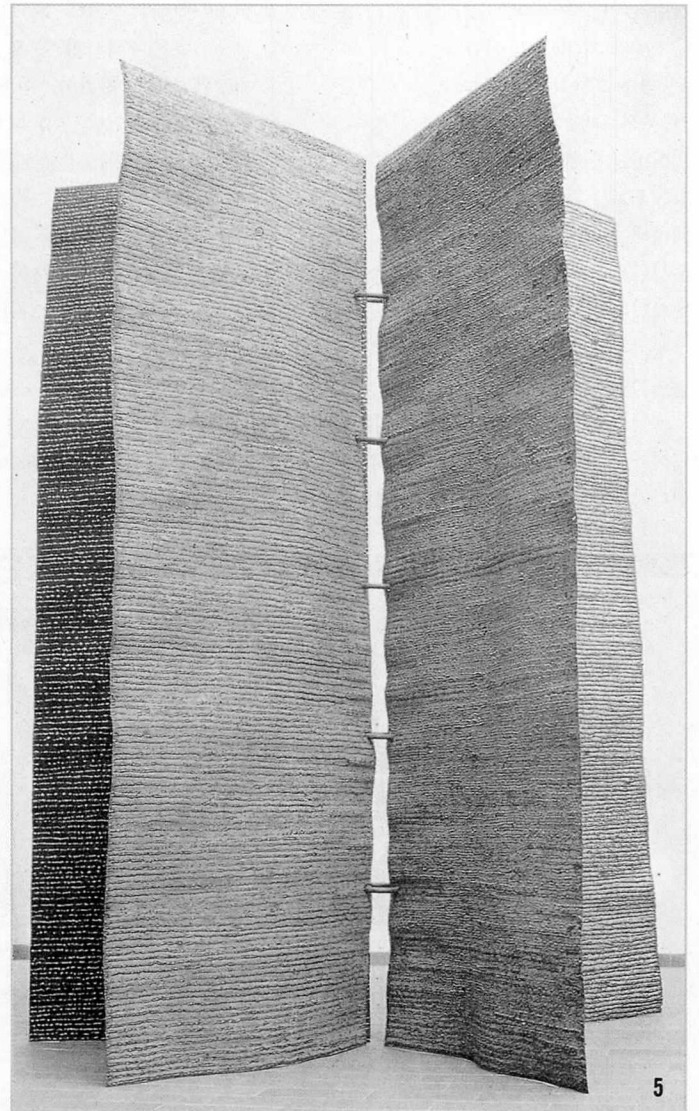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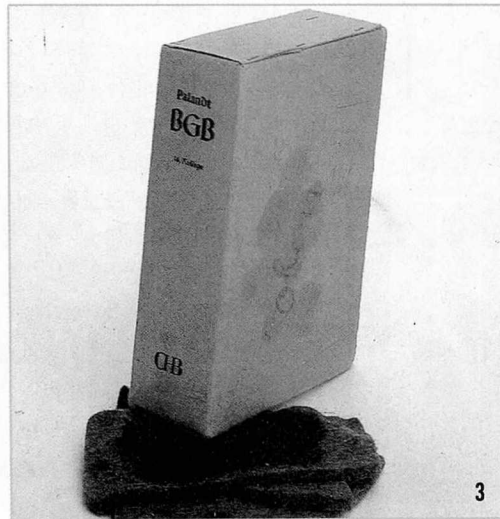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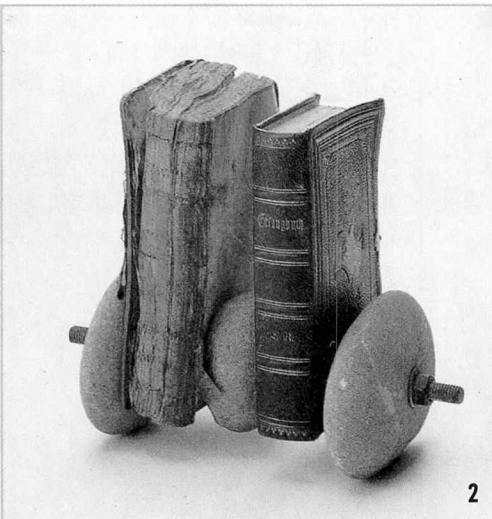
테이프를 사용하여 음향매체를 끌어들이므로써 그림·문자·음 그리고 언어의 통일성을 차단시킨다. 작가에 있어 예술이란 "인간으로부터 멀어진 외부세계 속의 위축된 지각능력을 회복시켜 총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.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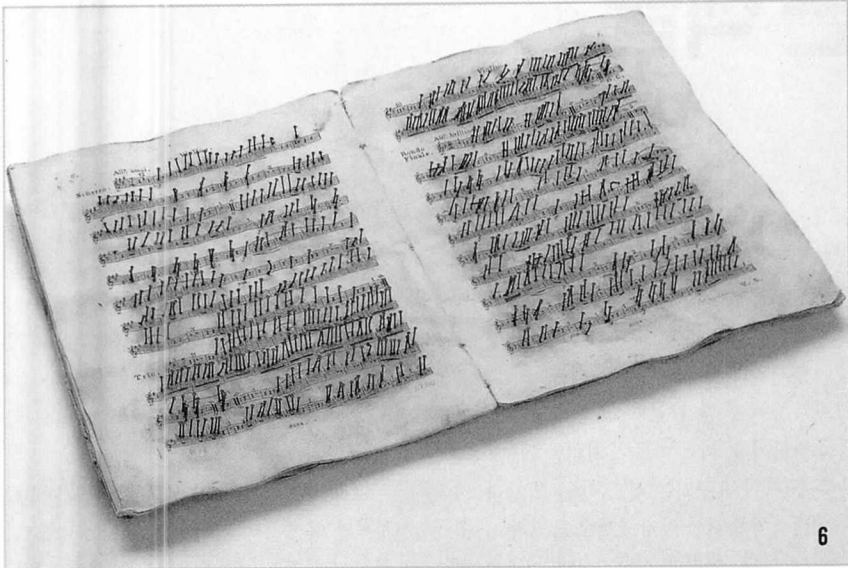
④ 만프레토 오토 「하나의 조각을 위해」(für eine Plastik, 1987)

'책이 아닌 책'은 무한한 상상력을 요구한다. 헤겔을 비롯한 사상가 음악가들의 초상이 박힌 이 작품의 책장을 '넘기면서 만지는' 기쁨은 곧 전체적인 사고체험과 연결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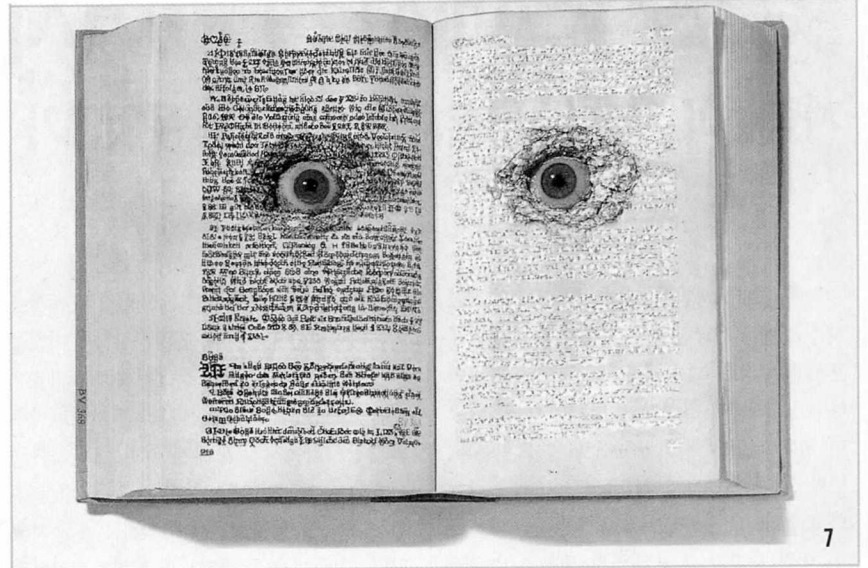
⑤ 볼프 키르쉬너 「오브제 L 250」(1984)

책장으로 보이는 이 작품에 조각가는 수많은 용접 이음자리로 '윤곽없는 흔적'을 표시했다. '만들어진' 새로운 형태는 관찰자의 정신적 참여를 호소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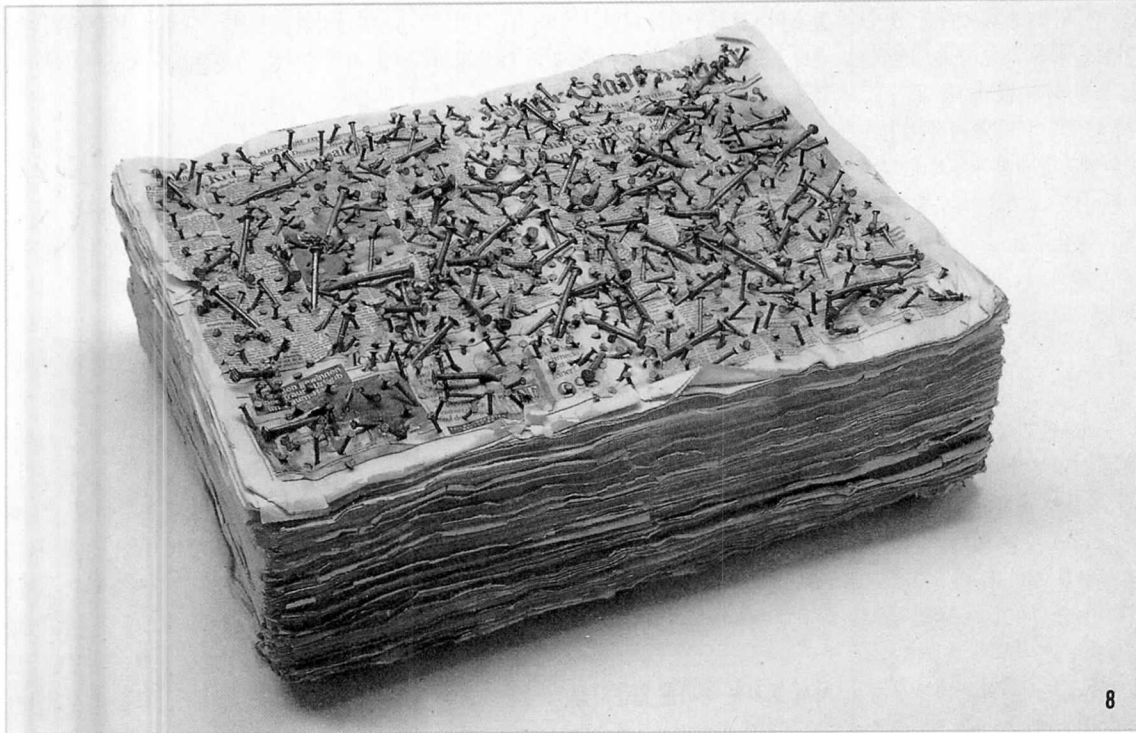




6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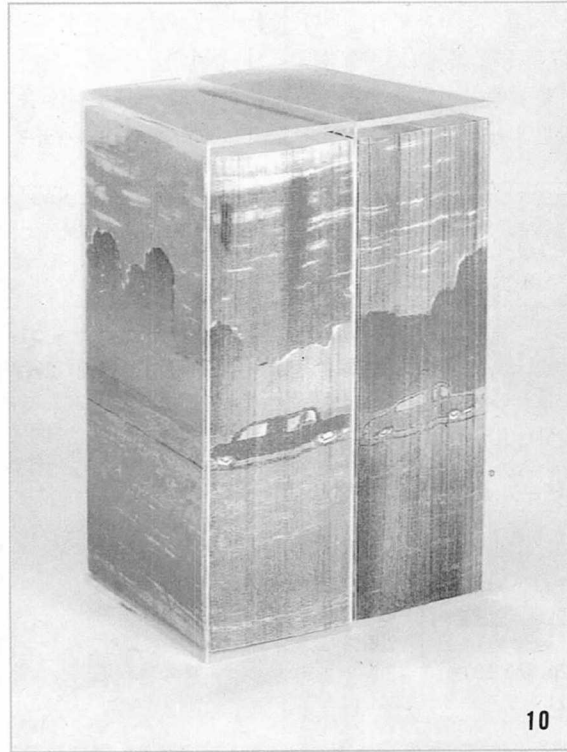
7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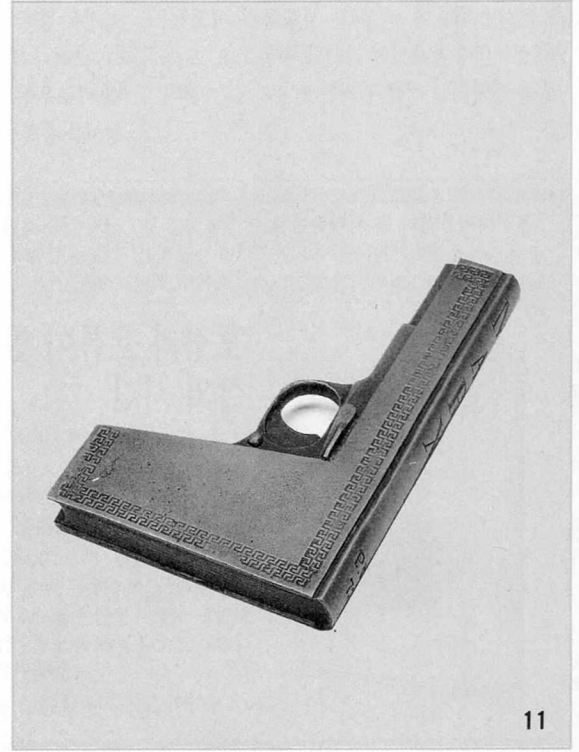
8



9



10



11

⑥ ⑦ 후베르투스 고조비츠키 「스케르초」(Scherzo) 「두개의 눈을 가진 책」(Buch mit zwei Augen, 1973)

서로 대비를 이루는 소재와 재료를 사용하여 다다이즘적인 콜라주 접합의 매력적인 작품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작가의 대표적인 두 작품. 파괴적인 변형의 모습에서 풍부한 내용을 암시적으로 읽음으로써 강한 인상을 준다.

⑧ 컨터 워커 「문맹의 기념물」(Analphabetisches Monument, 1978 / 80)

「글자의 침묵」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작품에서 작가는 언제나처럼 대상물에 못질을 하고 있다. 쌓아놓은 신문에 못질을 함으로써 대량으로 찍혀나오는 종이에 대한 회의를 표현한다.

⑨ 볼프강 니블리히 「조용한 삶」(Ein Stilleben, 1987)

물결모양의 층으로 이뤄진 얼굴 없는 형상의 책은 인간의 정신을 통제하는 '뇌'와 동일시된다. 책 모서리는 멀리 바라보는 눈을, 중간을 지나는 쇠줄은 의명의 개성없는 인간을 나타낸다.

⑩ 얀 보스 「200 급경사」(200 virages serres, 1988)

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가 현실 속에서 움직이는 듯한 위치감을 느낄 수 있다. 마치 기차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붓을 들어 기차나 차가 움직이는 대로 차창 밖에 그림을 그리는 듯하다.

⑪ 파울 분더리히 「은유(막스 권총)」(Metapher(Marx - Pistole), 1973)

마르크스의 「자본론」을 권총의 형태로 만들어 은유적으로 표현했다. 브론즈의 소재 자체가 주는 은밀함과 내적이고 쉽게 부서지지 않는 느낌이 작품의 상징을 더욱 암유화한다.